

# 장흥군, '친환경 무산김' 경쟁력 강화 온힘

### 홍초3호·2호 품종보호 등록...홍초1호도 추진 "산업 지속 위해 우량 종자 연구·종자 주권 확보"

장흥군이 친환경 '무산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종 개발과 품종보호 등록에 힘을 쏟고 있다. 14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유·무기산을 쓰지 않는 전통 김 양식 방법으로 전국 최초의 친환경 김 브랜드인 '장흥 무산김'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매년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해역 및 무산김 양식 방법에 적합한 특 해역 및 품종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군은 친환경 무산김 양식 방법에 적합한 종자 개발을 위해 2009년 장흥 해역에서 무산김 양식에 적합한 종자를 선발, 7년의 육종 과정을 거쳐서 최종 3개 품종을 2016년 '품종보호 등록' 출원

을 신청했다. 이후 3년 간의 까다로운 품종 심사를 거쳐 2020년(홍초3호), 2021년(홍초2호) 각 2종의 품종이 등록이 완료됐다. 현재 '홍초1호'는 마지막 재배심사를 거쳐 올해 6월 최종 등록을 앞두고 있다. 품종보호 등록은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에 의거해 진행되며, 보호 및 등록을 위한 요건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 등록이 완료된 품종은 해당 기관이 20년 동안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성과는 시·군 단위 최초 해조

류의 품종보호 등록으로 알려졌다. 품종보호 등록으로 장흥군은 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육종 원천 소재 확보뿐만 아니라, 김 종자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은 2018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에 선정돼 '김 우량종자 생산시설'을 설치했다. 2021년 배양실, 연구실을 갖추고 문을 연 '김 우량종자 생산시설'은 홍초 종자를 비롯한 우량종자 보전·배양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성 군수는 "친환경적인 무산김 산



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응하는 우량 김 종자 연구가 필요하다"며 "품종보호 등록을 통해 종자 주권을 확보하고 '장흥 무산김'의 대외적 인지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 담양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 9월까지 특별 정리기간...생계형 체납자엔 처분 유예

담양군이 오는 9월까지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재무과장 주재로 읍면 세무·민원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정리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수입원인 만큼 군에서는 고의로 납

부를 회피하는 상습적인 체납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징수하고, 주민세·재산세 등 소액 체납분도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군은 정리목표액 12억7천만원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읍면별 지방세 체납자 전담 인력을 지정해 실효성 있는 체납자 실태조사 및 중점 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집중한다.

특히 6월 중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집중 운영하고 야간·주말 영치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도움을 주는 한편 고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훈 기자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오는 17일 개장한다. 사진은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 전경.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 제공>

##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 17일 개장

### 일주일 앞당겨...매주 주말 DJ 파티·'워터샷' 등 선풍

호남 최대의 물놀이 시설인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가 오는 17일 시설을 전면 개방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14일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에 따르면 평년보다 덥고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워터파크 개장일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더 앞당겨 17일 개장한다. 개장일 17일 MBC 트로트클라쓰 공개 녹화를 시작으로 24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DJ와 워터캐논, 물총이 어우러지는 여름축제 '워터-샷'이 진행된다. 디오션 워터파크 야외무대에서 공개 녹화가 진행되는 '트로트클라쓰'는 '트

롯요정' 요요미, '자기야' 박주희, '모세' 춘길, '쌍둥이 개가사' 상호상민 등의 출연진과 워터파크 입장객이 함께 호흡하는 축하쇼를 선보인다. 각 3시간씩 진행되는 1, 2부 녹화 사이에는 EDM DJ 파티가 준비돼 있으며 워터파크 이용권과 순천 정원박람회 입장권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펼쳐진다. 아울러 오는 24일부터 진행되는 '워터-샷'은 DJ 디지, DJ 캐스퍼, DJ 엔오 등의 DJ 공연과 더불어 이번 축제를 위해 설치되는 워터캐논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 대포가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울여름 물놀이 '인싸템'으로 통하는 각종 물총과 고글 반입이 가

능해지면서 여름 축제를 방불케 할 예정이다. '워터-샷'은 8월15까지 매주 토·일 오후 2시30분부터 90분 간 워터파크 실외 파도 풀에서 진행되며, 물총은 현장에서 대여 가능하다. 15의 물 대포와 함께 비상할 수 있는 캐논볼, 국내 최고 72도 각도에서 맨몸으로 떨어지는 다이렉트 슬라이드 등 실내외 10여개의 어트랙션은 워터파크 본래의 짜릿한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마쳤다. 김려군 디오션리조트 홍보기획실 실장은 "고객 경험에 중점을 두고 지역 유일의 썸머 워터 페스티벌을 기획했다"며 "친구, 연인은 물론 가족단위까지 모든 입장객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로, 여수에서 올 여름을 만끽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 화순군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모집

### 광주·전남 외 거주 관광객 대상...지정 업소 이용 비용 일부 할인

화순군은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12월15일까지 남도 숙박 할인 BIG 이벤트에 참여할 관광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남도 숙박 할인 BIG 이벤트는 지정된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숙박료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사업으로 숙박료 1

0만원 이상일 시 4만원, 7만원 이상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을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시와 전남도 외에 거주하는 관광객이 화순군에서 지정한 숙박업소 중 1곳을 선택해 숙박업소에 사전 예약 후 신청서를 담당자 이

메일과 네이버 양식을 활용하여 여행 하루 전까지 화순군 관광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할인 혜택은 1회이며 이벤트 참여자로 확정된 관광객은 숙박 영수증을 숙소에 제출한 후 반드시 할인액 청구서에 서명해야 숙박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벤트를 적극 이용해 화순적벽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10월에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축제'에도 꼭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기자

## 고흥군, '군립 하늘공원 조성' 가속화

### 봉안당 등 조성·내년 12월 준공 목표

고흥군이 '군립 하늘공원(조감도)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흥군은 14일 "군립 하늘공원 조성 사업비를 당초 97억원에서 101억원이 증액된 188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군립 하늘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부터 군의회와 다각적인 검토, 벤치마킹, 현장보고 등을 통해 확정했다. 사업 대상지는 고흥읍 호령리 산 173-1번지 일대로 6만3천895㎡ 규모에 1만 8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8천500기)과 자연장지(2천300기), 유택동산, 주차장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토지 매입 80%가 완료된 가운데 군 관리계획 세부 일정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군은 당초계획에 미반영된 시설 내부의 추모실과 사이버 추모관,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 기능을 추가해 설계에 반영했고 오는 10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이면서 품격있는 자연장지·봉안시설 설치로 그동안 타 지역 장사 시설을 이용해왔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20년 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늘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친자연적인 장례문화에 발맞춰 현대적인 감각과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주변과 잘 어우러지고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군립 하늘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군의회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11월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고흥=최봉환기자

## 보성군, MZ세대 공직자 소통 교육

### 내일까지 8급 공무원 대상 40명씩 총 3회 진행

보성군은 "최근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8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보성군 특색있는 MZ세대 공직자 소통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 이번 교육은 MZ세대 공직자들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직장 내 소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9-16일 기수별 약 40명씩 총 3회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은 나와 타인의 이해를 위한 조직 적응 교육, 직원 간 신뢰와 자긍심 제고를 위한 공감과 소통의 시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재충전의 트래킹 등 힐링과 조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위주로 추진됐다.

특히 직원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한 김철우 보성군수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MZ세대 직원들과 격의 없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당당하게 일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보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군수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보성군의 주역이 될 공직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고 조직 내 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성=임병연기자



##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본격 추진

### 비상근무반 편성...7-8월엔 안전관리요원 배치

광양시는 14일 "다가오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물놀이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 백운산 4대 계곡 및 배양도 수변공원을 대상으로 물놀이 인명구조장비 구축,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 안전 위험요소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인 6-8월 철저한 상황 보고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정비해 시민과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피서객이 몰려오는 7-8월에는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에 안전관리요원 44명을 배치하고 순찰, 계도 활동은 물론 비상시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활동 등의 임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에 따라 ▲유관기관 협조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인명 구조함 등 안전시설 정비 확충 ▲비상근무 및 상황관리 ▲안전수칙 대국민 홍보 등도 실시한다. 문병주 안전총괄과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피서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음주 후 수영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양=양형철기자

